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

〈11〉 진정한 행복을 위한 마음 혁명

샤론 샐즈버그(미국 수행지도자)

서로 연결됨 알 때 괴로움도 줄어든다



도덕적 행위의 아름다움

인도에서 스승님 한 분을 미국으로 모셔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미국에서 우리가 행하는 불교 수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본 것에 대해 대부분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서양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노 젓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연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양사람들은 아주 진지하고 열심히 노를 젓고 또 젓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를 부두에서 풀어놓는 일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수행 체험, 즉 공간과 시간과 몸과 마음을 넘어선 체험이나 멋진 초월감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배관 수리공이나, 집안을 엉망으로 어지럽힌 어린아이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연민을 표현하고 또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얼마나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수행의 길을 가는 도중에 강력하거나 미묘한 경험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길은 어디까지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포함해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극소수 사람만이 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붓다가 법(Dharma)을 가르치려고 결심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 세상을 살펴보니, 많은 존재들이 행복을 이루려는 욕망을 갖고 있지만 무지 속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무지 때문에 그들은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붓다가 가르침을 펴기로 결심했을 때, 그분은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점을 먼저 주지시켰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윤리적인 일에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붓다의 영감이었습니다. 만일 마음이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러한 내적인 상태가 외부적으로는 다른 존재들을 보살피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 즉 규범(戒)으로 표현된다고 붓다는 가르쳤습니다. 이 둘은 같은 빛의 두 측면입니다.

빨리어에서 실라(sila, 戒)라고 하는 윤리적인 행동은 베풂과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그것은 길의 시작인 동시에 그 길의 크나큰 결실이며, 마지막 도달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붓다는 도덕적 행위를 진정한 아름다움의 원천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이고 형식적이고 쉽게 변하는 미적 감각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깊은 사랑과 관심, 돌보는 마음을 보여 줍니다. 붓다는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계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 작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물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 배려, 이 모두가 우리가 속해 있는 전체 속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원하고 정신적인 진리를 찾고자 원하며 만물의 삶을 꿰뚫어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조화 속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業의 과보는 서로 다르다

계를 지키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계에 대한 이해가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고 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더 깊은 행복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존재로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의 원천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되도록 정확하게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붓다는 우리와 같은 범부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론이나 인식에 의해서 업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붓다의 경지 · 선의 경지 · 업의 과보 세상에 대한 사색)' 가운데 하나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분적이나마 업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일
수행의 길 걷는 시작 단계
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더 나은 삶의 가능성 열려

업의 법칙은 삶 속에서 사건들을 만들어 내는 유일한 조건이나 방식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조건들 중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왜 하필이면 나야?"라는 식으로 쉽사리 인생에서 희생당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주받았다거나 축복받았다고 느끼며, 저주나 축복 모두 자신의 일부라기보다 그저 환경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을 이해하면 진정으로 자신에 대한 정신적이며 도덕적인 책임의식을 지닐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소유자이다."

업이야말로 우리가 생을 거듭하면서 지니고 다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말과 행동의 배후에 있는 동기나 의도는 매 순간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됩니다. 의도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 씨앗은 어떻게든 결실을 맺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려는 의도는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불편하거나 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업의 법칙은 기계적으로 정밀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업이 결실을 맺을 때 실제로 많은 변수를 용인합니다. 모든 의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의도들은 변경되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만일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행위가 초래하는 업의 결과는 아주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진실하고 연민의 마음을 지닌 채 살고 있다면 그 거짓말은 개선되겠지요.

이처럼 복잡하게 상호 작용하는 조건들 때문에, 붓다는 어떤 사람의 행동과 그 업의 과보가 똑같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통속적인 관념에 따르면 모기를 죽인 사람은 이 생 또는 다음 생에서 모기 떼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업이 이처럼 결정론적이라면 붓다는 정신적인 깨달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결정론적인 세계관에 따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그 업의 결과가 가변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다양한 상호 작용 속에서 결과를 체험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와 깨달음의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피하진 못해도 개선할 수 있어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력의 장(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쌓아 온 업은 물론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도 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만들어 낸 장에 의해서 거의 똑같은 행동도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 변명을 했다면, 그 행동은 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절제와 마음챙김, 자애 수행을 열심히 닦는다면 우리 삶의 흐름은 점차 넓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깜빡 잊고 부주의하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업의 씨앗은 이전과는 달리 아주 색다르고 탁 트인 환경에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법, 즉 정신적인 수행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네 가지 고귀한 마음을 닦을 때, 그 행동과 결과는 열매를 맺어 광대하게 열린 공간을 만들어 냄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온의 힘을 강하게 만들면 우리 마음은 색이 칠해질 수 없는 허공과 같이, 또한 결코 불탈 수 없는 순수한 강물같이 될 것입니다. 숲속에 숨거나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써도 업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지만 대신 우리는 주의 깊게 사랑을 지니고 삶을 살아감으로써 업의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업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을 비관적으로 본다면 이가 아플 때 우리는 더 이상 치과 예약을 하지 못하겠지요. "그래, 이것은 내 업일 뿐이야"라고 생각하면서 통증이 더 깊어지도록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덜 화내고, 덜 괴로워하고, 덜 집착하면서 무언가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알아차림 자체는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 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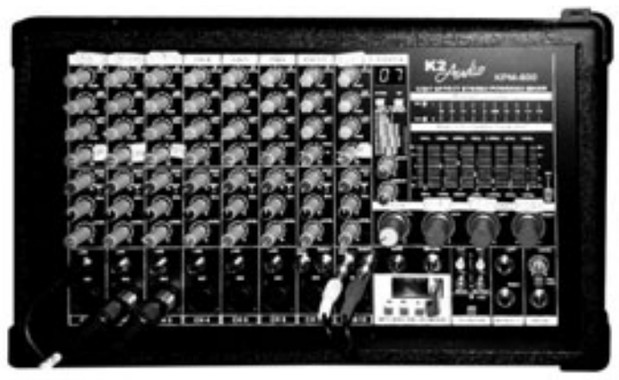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진리인 법을 보호한다면 그 법은 다시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지하고 떠받든다면 우리 또한 지지받고 떠받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법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호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낼 때 우리는 피난할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며 계를 지킴으로써 행복에 이르는 우리의 길입니다. 자유의 길인 법은 홀로그램과 같습니다. 하나의 각도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전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 이 네 가지 고귀한 마음가짐 안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해치지 않는 행동을 발견합니다. 해침이 없는 행동 안에서 우리는 네 가지 고귀한 마음, 즉 천신들의 상태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혁명적인 원천입니다. 〈끝〉

이 글은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조계종 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용중인 법당의 앰프, 스피커를 최고급 "파워드믹싱 앰프"와
아래 장비로 단 160만원 에 소리 공양차 교체 설치 보시 해 드립니다!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회수 해 옵니다)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 내장
가격 : 1,200,000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700,000 +


무선핸드 헤드셋 마이크
900메가(1가지 선택)
가격 300,000 +

각종 마이크 코드 탁자
설치비 일절
비용 : 250,000 =


무선랜드, 헤드셋 마이크 900메가 (1인용 선택)
(기본으로 무선 핸드나, 무선 헤드셋 중 한가지 선택)


주지스님 전용!
자체 소리조절
고성능 탁상 마이크
가격 : 185,000원

실제대금 ~~2,450,000원~~ ➡ 160만원 에 할인 설치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팩스 (02)2601-8284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법당의 앰프 설비 보상교체 신청법!
본 설치는 무료 보시 및 보상 성격상 출장 설치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상품을 예약시 우측의 계좌로 앰프 구입비의 계약금 '50~60% 정도 입금' 하시고 주소 및 희망 설치일, 문자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CD 플레이어 5개 연속사용 가격 : 350,000원